

# “남북출판교류, 협회기능강화에 역점”

대한출판문화협회 제40대 회장 金洛駿 씨

“출판을 천직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일해온 것 외에 달리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저에게 이 같이 막중한 자리를 주신 회원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의 출판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출판계의 구심점인 출협 회장에 선 출해주시는 것을 ‘충실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10일 총71명으로 구성된 출협이사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제40대 출협 회장에 피선된 김낙준(60, (주)금성출판사회장)씨는 “영광스러운 한편으로 자못 두렵기까지 하다”며 겸손하게 당선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선거는 당초 출협부회장과 출판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형두(58, 범우사) 사장과, 역시 출협부회장이었던 김낙준 사장과와의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투표결과 총투표 68표 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57표를 얻은 김낙준 회장에게 돌아갔다.

출판업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처한 국내 출판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보고 관심을 집중시켜 왔었다. 김회장 스스로가 ‘당선’을 ‘봉사’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듯, 금성출판사를 준계별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켜온 자타가 인정하는 뛰어난 경영 감각을 여기서도 유감없이 발휘, 전환기의 출판산업을 도약의 기반 위에 올려놓는 데 애써야 할 책무를 안게 됐다. 다음은 신임회장과 의 일문일답.

**“올 서울도서전 북한 초청”**

-90년대를 국내출판산업의 중대한 전환기라 말하셨는데, 이에 대비 이 시기에 출판계의

핵심주체로서 출협이 주력하여 떠나갈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몇가지 말해주시지요.

“우선 크게 세가지로 뭉뚱그려 보았는데, 먼저 국내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출판교류를 추진하는 일이고, 대외적으로는 정보화 국제화 하는 출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출판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는 작업, 그리고 출판계 내부적으로는 협회건물의 확충 등과 같은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남북한출판교류를 제1의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합의서에서 출판교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이전부터 남북한 이질화극복을 위한 출판물의 교류나 방법들이 무성히 제기되곤 했습니다.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우선 전제되어야 할 일로는 북한의 출판제도와 출판실태 등에 대한 조사 연구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쪽의 출판실정이 어떤 상태인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상호보완적인 교류나 협력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출판교류협력 대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 남북한 출판당사자들간의 상호방문이라든지, 현재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북한출판물들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복제출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올 10월에 개최될 서울도서전에는 북한을 초청하는 문제도 추진중입니다. 서로의 체제와 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남북출판교류협력 대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 남북한 출판인들의 상호방문이라든지 현재 저작권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북한출판물의 복제출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감개는 올 10월 개최될 서울도서전에 북한을 초청하는 일도 추진중입니다.”**

신임 김낙준 회장



다.”  
-유통구조의 취약함은 늘 제기돼온 문제입니다. 유통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출판산업을 현대화하는 데는 유통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낙후된 유통체계는 출판산업의 아킬레스건이었고 그런만큼 유통구조의 선진화는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도서기구의 설립이 추진되어 왔으나 출협에서 세우고 있는 유통선진화의 목표는 기존의 도·소매상을 육성하여 컴퓨터와 통신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네트워크형 출판유통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판사와 도소매서점, 창고업자, 운송업자, 은행 등 유관조직들끼리 밀접한 협업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회장은 이같은 기본구상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들로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위한 출판물유통센터의 건립 ▲ISBN·POS제도의 보급확산 및 출판유통 VAN(부가가치통신망) 설립 ▲유통시장개방에 대비한 서점육성책 ▲대금결제방법 및 반품제도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거래제도의 개선 ▲독서클럽, 통신판매 및 등 출판형태별 다양한 유통경로의 개발 등 세부계획들을 내놓았다. 특히 시장개방에 대비 서점시설의 현대화 대형화나 지방서점의 육성

**정신세계사에서 운영하는 정신세계 전문서점 책방 정신세계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정신세계사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정신세계 전문서점 책방 정신세계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 ‘진짜 책방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간간한 명상음악이 흐르는 깨끗하고 아담한 공간에서 하루종일, 책에 관한 문의에 응답도 해 주고, 원하는 책을 찾아 주기도 하며, 계산대에서 책값을 받기도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책을 좋아하고(책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공부도 대학졸업할 정도는 한(수준높은 독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곳이므로), 나이 28세 미만(정열적으로 일해야 하므로)의 남자나 여자.

책방 정신세계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사진이 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번호 110-070 서울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502호 정신세계사 정주덕 양으로 2월 10일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책방 정신세계의 통신판매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적주문예탁금(2만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서, 가입신청서(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은 편지)를 책방 정신세계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 책방 정신세계의 통신판매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탁금은 이후로 주문하는 책의 대금으로 쓰이게 되며, 탈퇴할 때 잔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국민은행 : 031-21-0418-366
  - \* 농협 : 029-02-093816
  - \* 중소기업은행 : 277-13-0006-728
- 예금주명은 모두 ‘정주덕’입니다.

2. 회원이 되신 후에는 책방에 구비된 서적의 안내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게 되며, 언제든지 전화나 엽서, 편지, 팩시 등 편한 방법으로 예탁금 한도 내에서 책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신 책은 우편으로 배달되며, 우송료는 책방에서 부담합니다. 다른 출판사에 발행된 책은 할인되지 않지만, 정신세계사에서 발행된 책은 20%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방 정신세계**

정신세계사가 운영하는 정신세계 전문서점/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00 영림빌딩 2층/전화 741-7033/팩시 741-7034

### 다재다능한 실력자

윤형두 부회장



대표적인 단행본출판사 가운데 하나인 범

우사의 대표로서, 수필가 대학강사(출판학)로도 활동하는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한 출판계의 실력자. 66년 범우사를 설립, 문학 예술 아동 역사물 분야의 단행본에 주력, 1천 5백여종의 도서를 펴냈고 정간물 「역사산책」 「책과 인생」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관심분야가 폭넓고 학구적인데다 인품 또한 후덕해 「출판계의 마당발」로 소문나 있다. 5만여권 장서를 소장, 愛書家賞을 수상하기도 했고 「출판물유통론」을 비롯한 수 권의 저서로 출판학회 저술상을 받기도 했다.

전남 여천 출신으로 부인 신영숙씨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58세.

### 도서권 보급에 앞장

김현식 부회장



도서보급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동아출판

사 사장으로 지난 85년 두산그룹 계열사의 대표로 있다가 출판사 사장으로 영입된 전문 경영인 출신. 출판계에 발디딘 지 7,8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부회장에 피선된 데서 보여지듯 정계, 재계에 걸쳐있는 폭넓은 인맥과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펴나가는 게 강점. 지난해 4월 16년만에 부활된 도서상품권 발매시 동아출판사가 대주주(80%)로 참여하는 데 수완을 보이기도 했다. 「도서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책선물의 생활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강조. 부인 이절자 여사와의 사이에 아들만 둘 두고 있다. 60세.

### 출판유통에 일가견

나춘호 부회장



어린이도서 전문출판사인 (주)예림당의

대표로 39대에 이어 이번에 부회장을 연임했다. 계림출판사 영업담당으로 출판계에 투신, 72년 예림당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의 외도도 없이 아동도서만을 고집스럽게 출판해온 전문출판인. 창작동화 발굴과 일러스트 개발의 과감한 도입으로 아동도서의 단행본화에 주력, 그때까지 전집물로만 유통되던 아동도서를 서점으로 나오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적상과의 폭넓은 교류로 실물유통에 매우 밝은 점이 강점. 경북 달성 출신으로 부인 金順禮씨와의 사이에 아들만 둘. 51세.

을 통해 서점의 지역균점에 역점을 두는 한편으로 POS제도를 도입하는 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혜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협의 기능강화를 위한 갖가지 사업계획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회관의 확장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최우선으로 꼽히게 된 이유라.

“순전히 회원의 힘을 모아 1976년에 건립한 현재의 건물은 그동안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준공될 당시에 비해 출판사의 수는 무려 10여배나 증가하였고 회원사의 수도 1100여개사로 지금의 규모로는 확장된 세를 수용하기 벅찬 실정입니다. 회관에서 총회도 개최할 수 없고, 주차공간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시설이나 설비도 너무 낡고 낙후되었습니다.”

회관을 신축했을 당시에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에도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 가능했고, 전시장이나 강당 대역도 줄을 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낡고 크기도 작아 임대도 어렵고 부대시설의 대관도 여의치 못한 형편입니다. 건물에서 생기는 수익은 협회운영의 가장 확실한 수입원인데, 임대수입이 감소되어 협회의 재무구조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경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 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되기까지는 몇년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의 이 건물을 선배 출판인들이 주머니돈을 각축하여

지었듯이, 새 회관 건립에 드는 비용은 회원사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걷는 방법과, 회관건립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61년 출판계에 첫발디딘 입지전적 인물

김회장은 이밖에도 편집·제작공정의 전산화 출판사들에 깊어지을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쇄·제본업계와 제휴, CTS 등의 제작시설과 소프트웨어 등의 공동개발 공동이용의 방안도 모색중이며, 문자코드, 출판용어의 통일화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출판의 전 영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출판산업을 현대화하는 일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들었다.

지난 61년 당시 영남최대의 도소매점이었던 대구 문화서점에 입사, 유통업계에서 출판과 첫인연을 맺었던 김회장은 65년 금성출판사를 설립 26년만에 연매출액 7백억원대에 이르는 대형출판사로 키워낸 출판계의 입지전적 인물이다. 겸손함을 무기로 한 특유의 친화력이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게 주변의 인물평.

금성출판사를 설립한 이래 아동도서 출판에 주력하여 왔으나 86년 체제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 사전 문학 예술 검인정교과서 등 전집물 중심의 종합출판사로 영역을 확대해와 (주)금성교과서 금성문고 KAMP(주)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부인 이정학 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는데, 두 아들이 모두 출판계에 투신, 대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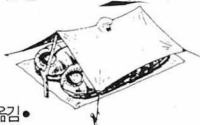
— 정혜옥 기자

### 진선출판사 720-5990-1

▶2도 인쇄 / 각권 값 4,800원

#### 자연의 길잡이 「모험도감」

야외에 나가면 당황하는 아이들. 자연의 벗 「모험도감」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도 보는 법, 음식 만드는 법……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꿈을 펼쳐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토우치 아이 글 / 김창원 옮김

#### 개구쟁이들의 친구 「놀이도감」

신나게 뛰노는 하루. 언제, 어디서, 누구나 「놀이도감」이 함께 합니다. 전승놀이, 화초놀이, 야외놀이…… 마음껏 달리고 던지고 구르면서 미래의 꿈이 자라납니다.



•오쿠나리 다쓰 글 / 김창원 옮김

#### 동물, 식물의 세계 「자연도감」

알쏭달쏭하고 신비스런 자연의 세계. 「자연도감」에는 동물, 식물의 관찰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명가수 종다리, 개미버섯…… 싱그러움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커갑니다



•사토우치 아이 글 / 김창원 옮김

#### 장난감 잔치 마당 「공작도감」

마구 쏟아지는 장난감속에서 자주 새것을 사달라는 아이들, 「공작도감」이 도와드립니다. 흔들 귀신, 우주 정거장…… 물건의 소중함과 만드는 기쁨을 느끼면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기우치 가스 글 / 김창원 옮김

◎ 「교육도감」 「퀴즈탐험」 선물세트도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